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53)(4/9/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35 장 현세에서 시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음, 1-3 절

마 4:4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대하 20:12 - 우리 하나님이며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빌 3:20 -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막 9:29 -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1. <그리스도> 아들이, 현세의 삶 속에서 안전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욘 7:1),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너는 언제나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적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고, 좌우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후 6:7). 그러므로 인내의 방패를 사용해서 사방을 방어하지 않으면, 너는 머지않아 다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참고 감당하겠다는 참된 뜻을 품고서 너의 마음을 내게 바치고 일편단심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너는 적들의 맹렬한 공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복을 받은 자들을 위해 준비된 면류관을 얻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용감하게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가야 하고, 너의 강한 손을 들어서 너를 가로막고 반대하는 것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 두셨던 “만나”가 주어지겠지만(계 2:17), 싸움을 회피하고 나태하게 산 자에게는 온갖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현세의 삶 속에서 안식을 구한다면, 어떻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많은 안식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오래 참고 많이 인내하기로 작정하라.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그리고 사람이나 그 어떤 피조물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참된 평화를 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여야 한다. 온갖 수고와 슬픔, 시험과 괴로움, 염려와 궁핍함, 연약한 것들과 상처, 비난과 질책, 굴욕과 수치, 책망과 멸시를 기꺼이 감수하라. 이런 것들은 덕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겪어야 하는 훈련들이며, 이런 것들은 하늘의 면류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사용되는 재료들이다. 나는 잠시 동안의 너의 수고를 영원한 상으로 갚아 줄 것이고, 네가 잠시 당한 수모를 무한한 영광으로 갚아 줄 것이다.

3. 너는 언제나 네가 원하는 만큼 영적인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나의 성도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고, 도리어 많은 괴로움과 온갖 시험과 큰 외로움과 쓸쓸함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감당하였고, 그러한 현재의 고난들이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롬 8:18), 그들 자신을 의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뢰하였다. 많은 성도들이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힘들게 수고한 후에야 겨우 얻게 된 것을, 너는 단번에 얻고자 하는 것이냐? 주님을 기다리고, 용감하게 행하며, 담대함을 가져라(시 27:14). 낙심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며, 도리어 너의 몸과 영혼을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려라. 내가 네게 차고 넘치게 갚아 줄 것이고(마 16:27), 환난을 당할 때마다 너와 함께 해 줄 것이다(시 91:15).

말씀과 해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환난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험으로 넘쳐남을 가르친다. 성경은 “시험” 이라는 단어를 쓸 때, 시련, 유혹, 그리고 테스트의 의미로 쓴다. 이 땅에는 시련으로서의 시험도 많고, 유혹으로서의 시험도 많다. 시련과 고난은 마치 우리를 공격하듯이 다가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이며, 유혹으로서의 시험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특징들 중의 하나는 모두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을 극복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와 함께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도 가르쳐 주셨다.

(1) **말씀으로 무장하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예수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 4:3)는 마귀의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신 8:3, 마 4:4)고 하셨고,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라는 시험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신 6:16, 마 4:7)고 하셨다. 아울러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시험에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신 6:13, 마 4:10)고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다. 예수님의 모습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영적 승리를 얻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질 때 시험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2)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창 39:9)라고 말하며 죄에 빠지지 않았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에서도 건짐을 받을 것이고, 고난과 시련으로서의 시험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위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이 간구했다. 대하 20:12 -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미가 선지자 역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미 7:7 -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3)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성도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둔다.** 골 3:1-2 -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영원히 속한 자이다. 빌 3:20 -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의 어떤 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지 않으며 초월할 수 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하늘에 소망을 둔다면 이 땅의 것들로 인해 당할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 같이 자신의 것을 주를 위해 포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들이 주를 위해 포기한 이유는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4) **영성의 성을 견고히 쌓으라.** 시험은 영적으로 느슨해 졌을 때 찾아온다. 나의 내면에서 영적인 틈이 벌어지면 마귀의 유혹이 스며들 수 있다.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 각성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견고한 영적인 성을 쌓으라는 메시지로도 받게 된다. 역사를 보면 인간들은 전쟁을 위해서 성을 견고히 쌓았고, 강력한 진지를 구축했다. 지금도 전투를 벌일 때 방어와 공격을 용의하게 해 주는 다양한 진지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영성 생활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영성의 성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수단이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쉬게 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된다.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수단이며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막 9:29 -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모든 종류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적 승리를 얻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면서 기도로 영성의 성을 견고히 세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갱신하며 새로운 영적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북한을 장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고 그 땅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3. 우리교회가 더욱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의 방주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